

수화를 배워 봅시다

요 며칠 내리는 비를 보고 어떤 이는 겨울 비라고 하고 또 성질 급한 이는 봄비라고 बारबार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다.

그러면 강원도에 내리는 폭설은 뭐라고 말할런지...

10인10색이라고 보여지는 현상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거니...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새해 들어 농아계에서도 야심찬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회 각 부분과의 조율과 농아 인권에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구두로 약속한 사안들이 번번이 어겨지곤 하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토론회와 거리에서의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영화진흥법 개정, 도로교통법개정, 선거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막상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영화진흥법개정이요, 1종 운전면허제한 철폐는 취업 권을 확대하고자하는 것이 도로교통개정안이요,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 선

거범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 시켜줄 것과 관철될 때까지 국회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법들이 회기 내에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는지...

왜냐하면 필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복지의 현실은 여전히 두껍고 높은 벽으로 일반사회로의 편입을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필자의 업무가 주로 영상물 수화통역인데 2월이나 3월이면 프로그램 개편이 있거나 제작업체가 바뀌곤 한다. 그럴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수화통역방송의 지속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화방송의 경비부담에 대해 한 마디씩 하곤 했다.

그렇다고 수화통역료가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고 필름 값이 부담스러우면 수화통역료 안 받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다. 실제 몇 년을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분량을 조금 줄이고 여건이 되면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다 줄인대로 몇 년을 간다. 필자는 더 늘려야한다고 언쟁을 한다.

그러다 잠시 쉬자고 한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결국 필자를 성질 디따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만다.

또 한 곳은 방송의 속성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얼굴을 비치면 그제서야 스텝들 사이에서 '수화있습니다' 랜다.

처음엔 적응이 안돼서 "이런!?" 하면서도 "원고 주세요" "프롬프터 켜주세요" 등등의 요구를 하면서 '나에 대한 비도는 아니다, 바쁘다보니 잊어버린 거야' 라며 내 자존심과 결부시키지 않으려 애도 많이 썼다.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특성이자.

'인사는 눈을 맞추며 해야되는 건데...' 하면서 일부러 얼굴을 들이대며 인사를 한다.

덕분에(?)시간이 앞당겨질 때 연락을 주곤 한다. 갑자기 20분 정도 남겨두고... 그래도 고맙다 허탕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 수화통역이 있는 날이면 모든 스케줄 뒤로하고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그 주변에서 서성인다.

아예 목을 메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는 명절 뒤끝이라 바쁘기도해서 녹장부리다가 '혹시나..' 하고 편성표를 보니 한시간이 앞당겨져 있었다. 부리나케 도착해보니 수화통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리이동이 있었는지 새로운 얼굴들이다.

"편성표를 보니 시간이 당겨져서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군요" 하며 반가운 기색이다. "오늘은 짧아요" 짧은 시간이라 미안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연락 안했나? 짧으면 뉴스도 안하나?'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원고를 달라고 하자 "아차차" 하며 무안해하는 기색이다. 이 정도야 애교로 봐 줄 수도 있다.

얼마 전 우리 대통령님의 새해인사 동영상에 자막이 나 수화통역이 없었던단다.

메일 받은 농아인들의 당혹스러움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는가?

청각장애인들에겐 귀가 눈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고 하자.

그래 실수라고 치자, 그럼 한번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두 번의 실수는 없게 해야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잊어먹지 않게 수화, 자막방송의 의무규정을 정한다면 위의 언짢은 에피소드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필자가 농아인관련 업무를 본 것이 10년이요, 대면서비스에서 한발 물러서 강의와 수화통역만 하기 시작한 것이 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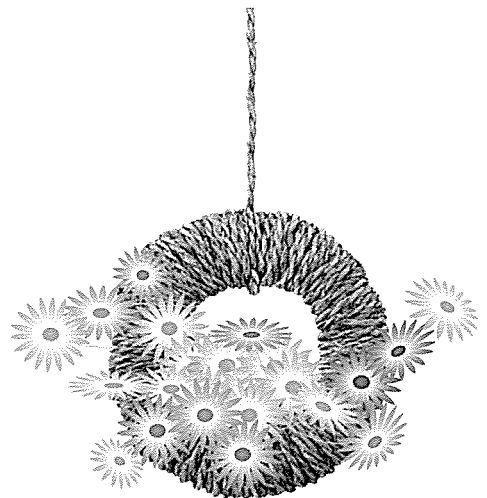
말만 바뀐것지 초창기 활동 구호에서 글자만 바뀐것을 뿐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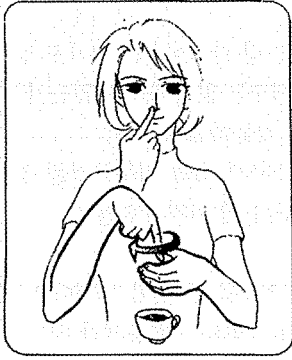
어찌겠는가? 여전히 수화통역사 스스로 나서서 챙겨야 하고 주변과 끊임없는 관계맺음에 노력을 해야지.

5분이나 10분의 통역을 위해 왕복3시간을 달리는 수화통역사들을 별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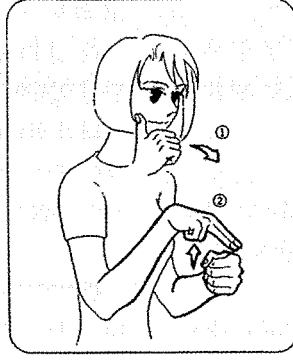
글 : 최 덕 신 _ 수화통역사,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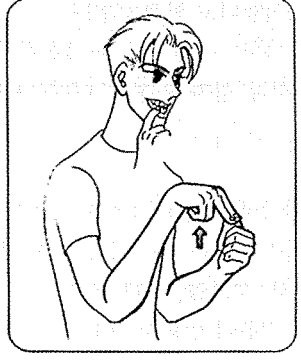
●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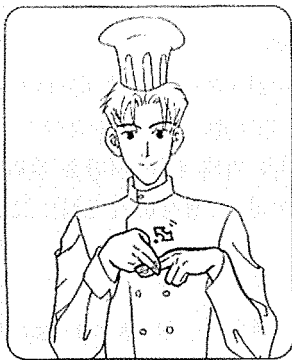
● 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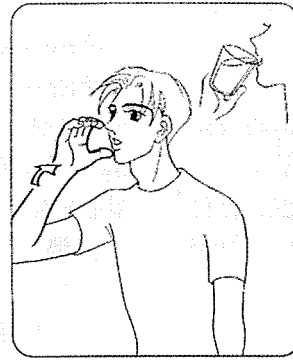
●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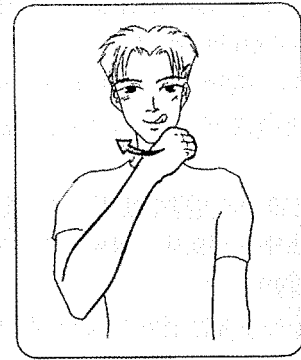
●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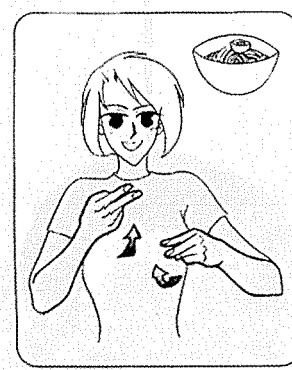
● 마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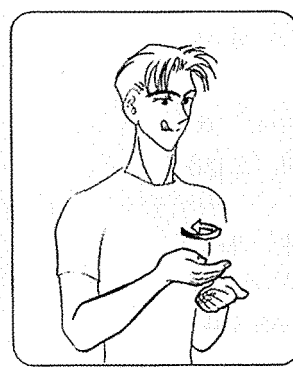
●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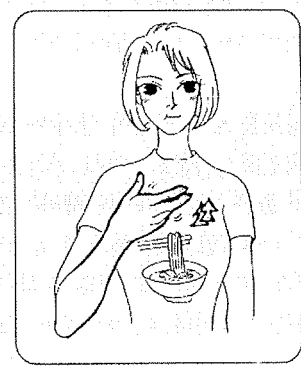
● 국수



● 쿵



● 우동



자료출처: 수화뱅크 (조태순, 도서출판 수화샘)